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CMYK

전주매일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음 12월 7일) 제19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우리땅에서 생산되는 맛좋은 감귤' 22일 도청 지하식당에서 열린 전북 생산 만감류 공동판매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에서 기후온난화에 따라 새롭게 재배하는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을 시식하고 전북만감류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전북지역 생산 감귤의 우수한 맛을 홍보하고 있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 주 매 일

걸을수록 행복한 전주만들기 나섰다

시, 보행정책 기본계획 수립

보행권 확보 등 정책 중심
내달 말까지 완료키로
전라감영 테마거리 등 조성
객사 앞 차없는 거리도 운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보행정책 및 시설 혁신방안을 마련, 보행자 중심의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는 2월 말까지 △어디든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단 보행 △걷고 싶어지는 쾌적한 보행 공간 △걸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보행도시 전주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지침'을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라 보행관련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심 속을 걸을 수 있는 보행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한 풍남문과 전라감영, 풍패지관을 잇는 길을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하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전라감영 테마 거리로 조성하고 주민참여 꽃거리 등 보행자 중심의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객사 앞 차 없는 사람의 거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로를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시민 참여형 행사로 매월 1회 운영된다.

지난해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배려하고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조성,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만들기를 위한 '도로관리 12원칙'을 수립했다.

이에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누구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북대 옛 정문에서 덕진공원 구간 캠퍼스를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로 조성했다.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팔달로 위의 전화 부스와 가로 등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도로비우기 시범사업을 추진, 총 109개 시설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전주의 첫인상인 첫마중길로 조성하는 등 도로의 차선과 폭을 줄이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인도의 폭을 넓혀 보도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걷고 싶은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며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등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금석배 학생 축구대회 29일 군산서 '킥-오프'

'2018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오는 29일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22일 전북축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금석배 축구대회가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군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115개팀과 중등부 48개팀이 출전하며 군산월명종합경기장과 금강체육공원, 군산대, 군산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등에서 열린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금석배 대회는 고 채금석 선생의 업적으로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대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박지성과 박주영 선수 등도 이 대회를 거쳐 가는 등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성 응원열기를 더 뜨겁게

시, 월드컵경기장 북측 관람석 스탠딩석 교체

전주시는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북쪽 응원석을 스탠딩석으로 바꿨다.

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 서포터즈가 보다 뜨거운 응원으로 선수들과 함께 뛰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도록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경기장 북측 관람석(1,680석)을 스탠딩석(1,200석)으로 교체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1,680석의 관람석을 철거하고 서포터즈가 서서 응원할 수 있는 스탠딩석 1,200석(접이식 관람석 900석 포함)을 설치했다. 서포터즈가 응원 중 잠시 앉아서 쉴수 있는 접이식 관람석 설치는 전주시가 700석, 전주현대모터스 200석의 경비를 각각 부담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스탠딩석이 설치되면서 오는 2월 13일 열리는 AFC챔피언스리그 예선부터 서포터즈의 응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서포터즈의 응원은 전북현대 선수들에게 사기를 불어넣고 전주성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는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앞서 전북현대를 응원하는 서포터즈연합회와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포터즈의 통일된 응원을 위해 기존 응원석을 스탠딩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을 수렴한 이후 스탠딩석 설치를 검토해왔다.

전북현대 서포터즈 관계자는 "스탠딩석 설치로 전북현대의 12번째 선수로써 90분간 쉼 없이 뛰며 통일된 응원이 가능해졌다"며 "배려해 주신 전주시에 감사드리며 전주성의 응원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응원문화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